

住宅 内部空間의 機能性에 對한 滿足度 調査研究

— 서울시 아파트를 中心으로 —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 of Interior Space of Household

— With a Focus on Apartments in Seoul —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任生活學科

教授 : 尹 福 子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Bok Cha Yoon (Lee)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研究教授 : 申 和 京

*Departmen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Research Assistant : Hwa Kyoung Shin

目 次

- | | |
|-----------|---------------|
| I. 서 론 | IV. 조사결과 및 논의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 of interior space of apartment and factor which influence it, and then to provide housing practitioners with basic data for more desirable apartment interior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e review of literatur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he sample was classified into type of unit floor plan and house size of 17 districts in Seoul. 139 households were selected in three districts which were the first three regions of high apartment density. Data were analyzed by computer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η^2 ,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actors which influence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ality of interior were

household size and family life cycle as sociodemographic variable, and type of unit floor plan as physical variable. It was shown that the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ality of interior was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More specifically, (1) the smaller a household size was the more the owner became satisfied. (2) households were in the stage of establishment in the family life cycle and households with C type of unit floor plan showed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3) satisfaction with the functionality of interior had positively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I. 서 론

1960년대 초부터 일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1960년대 이후 생활관습의 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주택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절대적인 양적부족에서 오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인 아파트를 주종으로 양적인 부족을 어느정도 완화시키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유형별 주택비에서도 1970년 전 주택의 4.1%를 차지하던 아파트가 1980년 19.5%로 그 비율이 상승함을 볼수 있다¹⁾.

어느 나라든 그 시대의 도시 인구집중으로 말미암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집약된 방안이 아파트였고²⁾ 도시내의 집합주택 즉 아파트의 출현은 인간사회의 변천에 따른 도시화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파트의 필요성은 과대한 도시팽창을 방지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능위주의 주거환경 및 주택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아파트 계획을 보면 대부분 변화없이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산과 경제상의 문제 및 규격이나 계획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주생활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체에 의해 구획되고 평면계획에 의존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활행위와 물리적인 공간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서 주택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생활은 그 목적을 다하게 된다.

주거계획시 고려해야할 요소로는 기능적, 구조적, 미

적 요소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주택의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평가시에도 현대에 이르러서는 역사상 혼했던 미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용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다³⁾. 그러므로 현재 건설된 아파트가 제대로의 주생활을 위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설계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보완하고 개량해 나가야 할 점은 없는 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아파트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최저 조건이며 인간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택에 대하여, 서울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주택 공급자측인 주택 건설업자나 건축가, 건축행정가 들에게 사용자 측면에서의 고려를 설계에 반영하여 주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파트 평면계획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둘째,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가족수, 가정생활주기, 주택소유형태), 물리적 환경 변인(단위평면유형, 주거면적, 거주기간) 및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의 독립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가족수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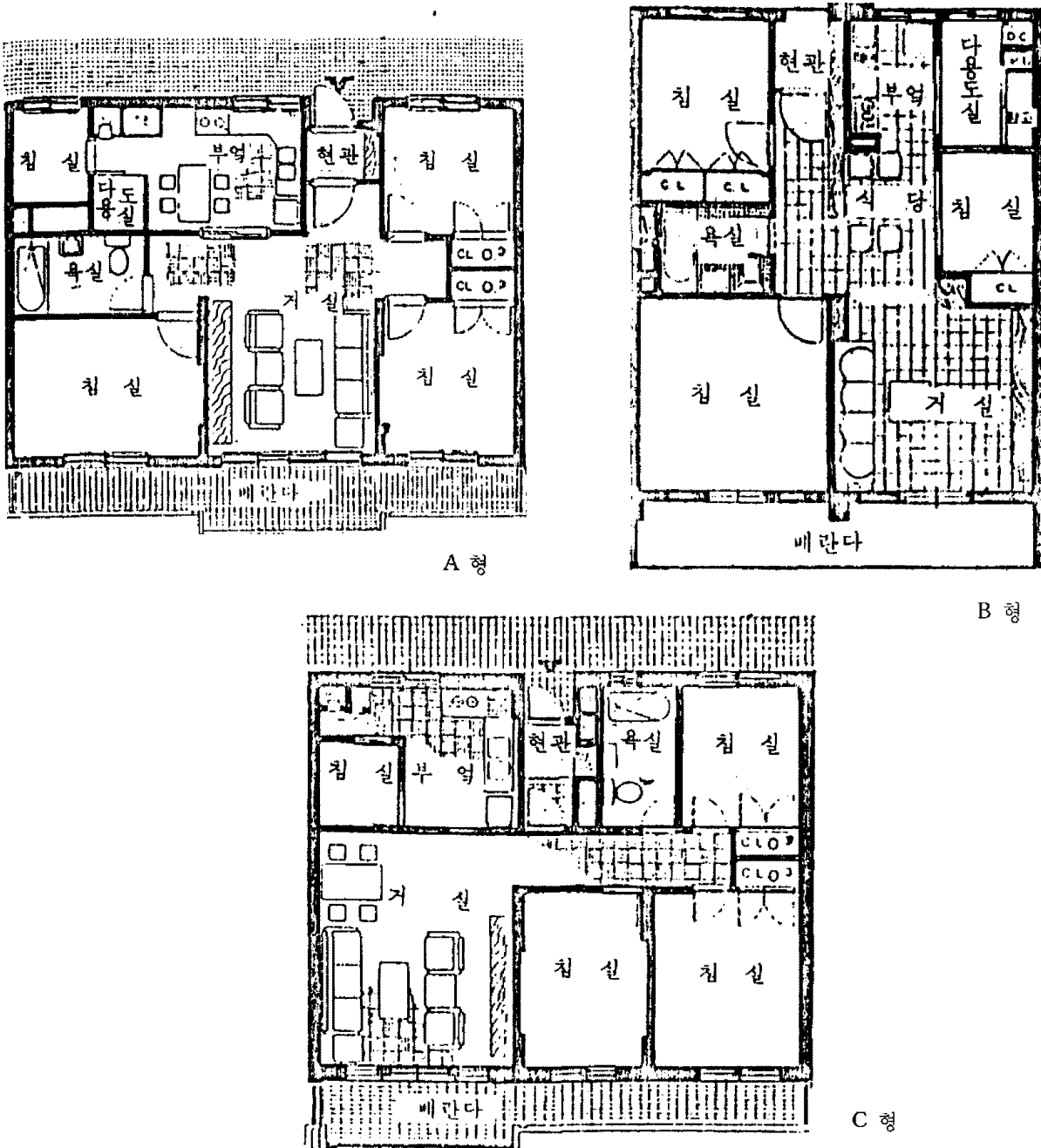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가구의 단위평면유형.

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단위평면유형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주거면적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거주기간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7)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한계를 밝힌다.

(1) 단위평면유형

태원진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아파트의 실배치 구성에 따라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그림 1 참조).

A형; 거실이 주택 중심에 위치한 형으로 다이닝키친(Dining-Kitchen)형.

B형; 거실, 식당과 부엌이 개방된 리빙다이닝키친(Living-Dining-Kitchen)형.

C형; 한쪽에 거실이 위치하고 반대쪽에 침실이 위치한 형으로 사회공간과 개인공간이 분리된 형. 리빙다이닝(Living-Dining)형.

(2) 주거면적

주거면적은 아파트에서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25평내외와 35평내외로 국한한다.

(3)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건물의 배치에 따른 옥외공간의 구성 및 외관, 녹지공간, 근린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이다.

(4)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침실수와 주거면적, 공간배치등 구조적인 있어서 생활하는데 가족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심리적 정도이다.

3) 연구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한계점을 밝힌다.

(1) 조사대상은 서울 시내에 건설된 아파트로 6 층이상인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로 국한한다.

(2) 주거면적에서 전용면적 25평에는 단위평면유형을 A, B, C 3 가지 형에 국한하며, 35평에는 A형 1 가지에 국한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주거만족도를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국한한다.

II. 문 헌 고 찰

1) 아파트의 유래와 발전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에 접어들면

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이에 수반되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의 효율화를 위해 입체적 이용 즉, 건물의 고층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숙소나 셀러리맨의 임대용 주택으로 건설하는 경향을 띤 서구의 아파트를 일본이 도입하여 협소한 국토위에 비교적 많은 인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경제의 고도화에 따라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인 중산층의 기호에 맞는 주거시설을 마련해 보고자 종래의 아파트에 서구식의 저택형식을 가미한 맨션(Mansion) 아파트를 건설하여 호화 저택형의 아파트로 발전되었다⁵⁾. 이렇게 발전되어온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양식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우리나라에 소개되자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⁶⁾.

도시내의 집합주택의 출현은 인간사회의 생활 변천에 따른 도시화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합주택의 성립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및 계획적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사회적 요인에는 첫째, 과학문명의 발달 및 급속한 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화의 흐름에 의한 인구유입과 도시인 자체의 인구증가, 둘째는 이런 사회적 변화속에서의 도시인의 신속한 이동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토지 소유개념에서 생활에 적응하려는 주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생활패턴은 오랜 역사의 대가족제도에서부터 핵가족제도의 패턴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네째, 도시화나 핵가족화에 따른 토지이용이 급증하여 토지가격의 상승현상을 불러 일으킨 점이다. 경제적 및 계획적 요인으로는 다수의 주택을 한 건물에 집단시키므로서 여유있는 공지를 갖고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축비의 절감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이 집합주택 형성 발달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2) 주택의 내부공간

(1)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

인간이 흔히 집에 거주하는 동물이라하여 주택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최저 조건이라는 것을 서술해 준다. 주택이 갖는 여러가지 건축적 요소에 의하여 공간이 형성되고 이 공간의 특성이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인간적 특성 및 욕구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Deilmann⁸⁾은 주택의 내부공간이란 생활에 대응되는 공간을 뜻하며 인간의 주거인 주택을 단지 특정한 기능, 즉 생활이라는 소비행위의 특수한 장소로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Zevi⁹⁾는 참다운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은 내부공간이며, 주택건축에서의 내부공간이야말로 주생활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자인 가족원들의 생활행위에 따라 생활공간의 시설배치 및 그 기능이 달라지며 주거기능은 취침, 단락, 가사노동, 위생 등 여러기능이 복합된 것으로 이들 제기능이 발휘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평면계획에 의존된다¹⁰⁾. 그리고 주거공간은 주생활이 영위되는 장소로서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주생활의 완전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실별로 용도에 적합한 면적이 필요하게 되며¹¹⁾ 주생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주공간과 생활의 주체인 가족의 생활주기를 대응관계로 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2) 주택의 내부공간과 주거만족

주택이라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화·사회·정신적·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에 있어서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Feild¹³⁾는 주거만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을 들고 있다. Stillwater도 주택의 물리적 특성인 주택의 크기가 주택의 내부구조를 주거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적했으며 Owenby와 Moore¹⁴⁾도 주공간에 대한 만족을 공간 형태와 크기에 대한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한 현주택의 상태와 주거 만족과의 관계분석에서도 주거만족이 현주택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owner 등¹⁵⁾의 연구에서는 주거의 기능성이 가정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따라서 생활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Lindamood¹⁶⁾는 주택소유권 유무가 주거만족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Back¹⁷⁾역시 만족의 조건은 임대와 대조되는 아파트의 소유와 관계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도구작성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것이 아니고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예비조비를 통해 신뢰도 측정($r=.84$)을 한 후 예비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사항과 아파트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문항, 외부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3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문항을 무작위 순으로 배치하여 5 단계의 척도를 갖고 있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1983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방문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의 단위평면유형과 주거면적이 중요한 물리적 환경변인이 되므로 표본추출시 (1) 서울시내 17개 구중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3개구를 선정, (2) 1970년 이후 건립한 아파트로 6층이상인 중앙난방식 고층아파트, (3) 주거면적은 전용면적이 25평내외와 35평내외인 아파트, (4) 단위평면유형이 A, B, C, 형인 아파트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유층적 군집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백분율, 빈도, 표준편차, 평균,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F-test)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η^2 (eta square),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 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IV. 조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사항

조사대상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 주거상태, 물리적 환경 배경을 조사하였다.

(1) 인구학적 배경

조사대상가구의 인구학적 배경으로 가족수, 자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1-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구성분포

N = 139

인구학적 배경	분	포	f	%
가 족 수	3	명 이 하	30	21.6
	4	명	55	39.6
	5	명	31	22.3
	6	명 이 상	23	16.5
	계		139	100.0
평		4.3 명		
자 녀 수	없	음	7	5.0
	1	명	19	13.7
	2	명	64	46.0
	3	명	32	23.0
	4	명	13	9.4
	5	명	4	2.9
계		139	100.0	
평		2.3 명		
주 부 의 연 령	20 ~ 29	세	17	12.2
	30 ~ 39	세	53	38.1
	40 ~ 49	세	52	37.4
	50 ~ 59	세	13	9.4
	60	세 이 상	4	2.9
	계		139	100.0
평		39.7 세		
가 장 의 연 령	20 ~ 29	세	8	5.8
	30 ~ 39	세	37	26.8
	40 ~ 49	세	63	45.7
	50 ~ 59	세	26	18.8
	60	세 이 상	4	2.9
	계		138*	100.0
평		43 세		
가 정 생 활 주 기	가	정	7	5.0
	학	령	28	20.1
	초	등	21	15.1
	중	· 고	37	26.6
	대	학	23	16.6
	자	녀	23	16.6
계		139	100.0	
가 족 형 태	핵	가	112	80.6
	확	대	27	19.4
	계		139	100.0

* 조사대상중 배우자가 없는 주부가 1명 있으므로 가장의 연령의 합계는 138 명임.

표 1-2.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구성분포

N = 139

사회경제적 배경		분 포	f	%
가 정 의 직 업	임금노동자, 상점 및 가게		4	2.9
	소매상, 중개업, 외무판매원		5	3.6
	사무직, 판매직, 약제사		20	14.5
	중소기업주, 중급관리직(중역, 이사관, 서기관), 전문기술자(엔지니어, 변호사)		84	60.9
	대기업주, 자유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법관), 고급관리직(장관, 차관, 장성)		22	15.9
	기타(가정주부, 학생, 은퇴, 무직등)		2	1.5
	무응답		1	.7
	계		138 *	100.0
주부의 직업유무	있	다	14	10.1
	없	다	125	89.9
	계		139 *	100.0
가 장 의 학 력	고 등 학 교 이 상		12	8.7
	대 학 교 이 상		126	91.3
	계		138	100.0
주 부 의 학 력	중 학 교 이 상		4	2.9
	고 등 학 교 이 상		32	23.0
	대 학 교 이 상		103	74.1
	계		139	100.0
가 정 의 월 평 균 수 입	50 만원 미만		3	2.2
	50 만원 ~ 60 만원 미만		16	11.5
	60 만원 ~ 70 만원 미만		10	7.2
	70 만원 ~ 80 만원 미만		14	10.1
	80 만원 ~ 90 만원 미만		17	12.2
	90 만원 ~ 100 만원 미만		5	3.6
	100 만원 ~ 110 만원 미만		35	25.2
	110 만원 ~ 120 만원 미만		0	
	120 만원 ~ 130 만원 미만		3	2.2
	130 만원 ~ 140 만원 미만		1	.7
	140 만원 이상		11	7.9
	무응답		24	17.2
	계		139	100.0

* 조사대상중 배우자가 없는 주부가 1 명이므로 가장의 직업과 학력의 합계는 138 명임.

주부의 연령, 가장의 연령, 가정생활주기, 가족형태를 조사하였으며 변인으로 가족수와 가정생활주기를 사용하였다.

가족수는 표 1-1에 나타난바와 같이 4명인 경우 (39.6%)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족수 4.3명으로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 4.5명¹⁸⁾에 비해 약간 적은 가정이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인 가정 (46.0%)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2.3명이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주부의 연령은 30~39세가 38.1%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이 39.7세였으며, 가장의 연령은 40~49세 (45.7%)가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주기는 Gross 외 2인에 의해 소개된 분류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장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표 1-1). 중·고등 교육기가 26.6%로 가장 많이 표집되었으며 학령전 아동기 (20.1%)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조사대상중 핵가족이 80.6%이고 확대가족이 19.4%로 나타났다.

2) 사회·경제적 배경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부부의 학력 및 가장의 직업, 주부의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장의 직업은 중소기업주나 중급관리직 및 전문 기

표 1-3. 조사대상의 주거상태의 구성 분포
N = 139

분 포		f	%
주거 상태			
주택소유 상태	자 가	120	86.3
	타가 (전세/월세)	18	13.0
	무 응 답	1	7.7
계		139	100.0
거주기간	1년 미만	25	18.0
	1년 ~ 2년 미만	36	25.9
	2년 ~ 3년 미만	22	15.8
	3년 ~ 4년 미만	14	10.1
	4년 이상	42	30.2
계		139	100.0

술자(60.9%)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주부도 14명으로 조사대상의 10%를 차지하였다.

부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가장이 91.3%, 주부가 74.1%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110만원인 가정이 2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주거상태

주거상태로는 주택소유상태와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표 1-3).

주택소유상태는 자가인 비율이 86.3%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 주택 보유율 54.4%¹⁹⁾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기간은 4년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2%).

4) 물리적 환경 배경

조사대상의 물리적 환경 배경으로 단위평면유형과 주거면적을 조사하였다 (표 1-4).

평수별 유형으로 25평-A형이 23.7%, 25평-C형이 22.3%, 25평-C형이 23.7%, 35평-A형이 30.3%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

표 1-4. 조사대상의 물리적 환경배경의 구성분포
N = 139

분 포		f	%
물리적 환경 배경			
단위평면 유형	A 형	75	54.0
	B 형	31	22.3
	C 형	33	23.7
계		139	100.0
주거면적	25 평	97	69.8
	35 평	42	30.2
	계	139	100.0
평수별 유형	25 평 A 형	33	23.7
	B 형	31	22.3
	C 형	33	23.7
	35 평 A 형	42	30.3
	계	139	100.0

2. 주거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분포는 표 2-1와 같으며 만족도 점수 범위는 32점에서 84점으로 나타났다. 주거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64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응답자를 만족한 것으로 보았을 때 28.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가설 1> 가족수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량분석 방법으로 F-test 한 결과 .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었다. 각 집단간 만족점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한 결과 가족수가 3명이하인 집단과 4명인 집단, 6명이상인 집단간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수가 5명인 집단과 6명이상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가족수가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은 그 공간의 적당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²⁰⁾. 침실당 사람수는 가족이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원시적인 측정기준은 하지만 가족들은 침실공간의 할당면에서 한 침실에 2인이상이 있을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가족수의 변화는 다른 공간 사용의 욕구를 증가한다고 한다²¹⁾.

따라서 가족수가 증가하면 침실당 사람수 역시 증가하며 가족의 불만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가족수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정도를 알기 위해 η^2 을 구한 결과 .117로 가족수를 알므로써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11.7%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변량분석 방법으로 F-test 한 결과 .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2는 긍정되었다(표 3-1).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로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정형성기와 학령전 아동기, 초등교육기,

표 2-1.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분포
N=139

점	분포	f	%
32	~ 35	1	.7
36	~ 39	0	
40	~ 43	0	
44	~ 47	6	4.3
48	~ 51	11	7.9
52	~ 55	24	17.3
56	~ 59	31	22.3
60	~ 63	27	19.4
64	~ 67	13	9.4
68	~ 71	16	11.5
72	~ 75	8	5.8
76	~ 79	0	
80	~ 83	1	.7
84	~ 87	1	.7
계		139	100.0
평균		59.7 (66.3)	
표준편차		8.0	
범위		32	84

() 100 점 만점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

중·고등 교육기, 대학 교육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수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가정형성기에는 가족수가 적어 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따라서 나머지 집단과 차이가 있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생활주기란 한 부부의 인생 과정에 초점을 둔 용어로 그 생활과정에 따라 주택에서 행하는 생활이 달라지며 가족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도 생활주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가정생활주기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정도를 알기 위해 η^2 을 구한 결과 .107이었다. 따라서 가정생활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므로써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10.7%정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3> 주택소유상태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량분석 방법으로 F-test 한 결과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5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은 부정되었으며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역시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정성자²²⁾는 주택소유상태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연구결과 밝혔으며 Lindamood²³⁾의 만족도 연구에서도 타변인을 통제하고 연구한 결과 주택소유상태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되기는 하지만 Beyer²⁴⁾의 조사에 의한 주택소유의 특성을 보면 자가인 주택이 타가인 경우에 비해 주거면적이 크고 상태가 양호했으며 주로 단독주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아파트 형태의 주택에 국한하고 평수를 어느정도 제한한 것을 (25평과 35평) 감안하면 연구 결과의 차이는 조사대상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가가 120가구 (86.3%)이고 타가가 18가구 (13.7%)로 두집단의 사례수가 고루지 못하므로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논의에 주의를 요한다.

가 있다고 보아 논의에 주의를 요한다.

2) 물리적 환경 변인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가설 4> 단위평면유형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량분석 방법으로 F-test 한 결과 표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4는 긍정되었다.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A형과 B형은 서로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A형과 B형은 C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간은 개인공간, 사회공간, 작업공간으로 분류되며 그중 사회공간에는 거실과 식사실이 포함된다. A형과 B형은 개인공간과 사회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평면형이며, C형은 이 두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평면형이다. A형과 B형은 식사실이 작업공간인 부엌에 연결되어 있으며 C형에서는 거실과 함께 사회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A형은 침실이 거실 양쪽에 위치하므로, 동적인 공간의 배치에 무리가 생기고 거실이 양

표 3-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례수	평균	F	Duncan's ¹⁾	n ²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가족수	3명 이하	30	63.84	5.93***	A	.117
		4명	55	59.91		B	
		5명	31	58.65		BC	
		6명 이상	23	55.14		C	
	가정생활주기	가정형성기	7	67.71	3.19**	A	.107
		자녀자립기	23	63.01		AB	
		학령전아동기	28	59.47		B	
		초등교육기	21	59.17		B	
		대학교육기	23	58.28		B	
		중고등교육기	37	57.43		B	
	주택소유상태	자가	120	59.71	0.13 ^{N.S.}	A	
		타가	18	59.00		A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 0.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 S. Not Significant.

단의 교통로와 접용이 되어 안정된 분위기를 얻기 힘들지만 C형의 경우는 거실이 공격적 성격으로서의 유효한 공간이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A, B형과 C형과의 만족도 차이는 이러한 이유에 의해 생겼다고 해석된다.

안영배²⁶⁾의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거실공간이 중앙에 있지 않고 한쪽에 쏠려 있을 경우, 공간의 안정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거실과 식당, 현관으로 연결되는 공간의 유동성도 강해서 공간의 쾌적성이 높아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또, 집단주위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25명이상의 주택에서는 거실과 식당을 같이 한 공간에 두는 리빙다이닝 형식을 취하는 것이 주생활 기능상 바람직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주생활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체에 의하여 구획되고 평면계획에 의존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단위평면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위평면유형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η^2 을 구한 결과 .135로 단위평면유형을 알므로써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13.5%정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5> 주거면적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변량분석 방법으로 F-test 한 결과 .05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 가설 5는 부정되었으며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 한 결과 역시 두집단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Sadberry²⁶⁾는 주거 가치관과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한 연구에서 공간의 양 즉, 주거면적이 주거만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tewart 와 McKown²⁷⁾도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주거면적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없이 나타나 Sadberry 와 Stewart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표집대상을 25명과 35명, 2 가지에만 국한한데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단위평면유형을 통제하고 주거면적이 25명과 35명인 주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주거면적보다는 단위평면유형에 따라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설 6> 거주기간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한 결과 거주기

표 3-2. 물리적 환경 변인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사례수	평균	F	Duncan's ¹⁾	n ²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평면 유형	C형	33	63.31	7.36**	A	.135
		A형	33	57.87		B	
		B형	31	55.73		B	
	주거면적	35평	42	61.18	3.87 N.S.	A	
		25평	33	57.87		A	
	거주기간	1년 미만	25	62.74	1.57 N.S.	AB	
1년 ~ 2년 미만		36	60.08	AB			
3년 ~ 4년 미만		14	59.72	AB			
4년 이상		42	58.74	AB			
2년 ~ 3년 미만		22	57.36	B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 S. Not Significant

간이 1년미만인 집단과 2~3년 미만인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게 나타났으나 F-test 결과 .05 수준에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설 6은 부정되었다(표 3-2).

인간이 생활공간에 처음 접하게 되면 지각이나 인식 과정, 그리고 이해, 행동, 저항, 반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공간의 사용법을 익히고 공간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적응은 하지만 처음 불만족하던 요소가 만족할만한 사항으로의 변모는 어렵기 마련이다. 따라서 행동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구조체에서 오는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외부환경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가설 7>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한 결과 표 3-3과 같이 .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긍정되었다. 그리고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알므로써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를 약 7.3% 예측할 수 있다.

주거만족은 주택 자체와 그 주택이 처한 주변환경에 의해 결정되며 주거지와 이웃환경의 쾌적함은 주거공간의 선호와 만족에 관계되므로, 주거만족도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 r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	.27 **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거의 기능성에 대해 28.1%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가족수, 가정생활주기와 물리적 환경 변인인 단위평면유형이었다. 그리고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생활주기에는 가정형성기가 다른 가정생활주기 단계를 집단보다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침실당 사람수에 의해 그리고 각 가정생활주기단계별 가족의 요구사항의 차이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리적 환경 변인에서는 주거면적에 따라 차이가 없이 단위평면유형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생활이 일반적으로 주택의 구조체에 의해 구획되고 평면계획에 의존하는 물리적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생활공간을 창출해 내는 평면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제언

주택 내부공간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아파트 계획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1) 주거 평면구조에 대한 욕구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감안하여 변화하는 가정생활과 가족의 취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간의 넓이조절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이동간벽 설치 방법의 개발로서 생활공간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설계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가정생활주기와 단위평면유형에 따라 주거의 기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며 이 만족도는 소비자 행동을 유발시켜, 주거면적과 형태가 같은 동일형의 단위평면 집합형 아파트를 한 곳에 대량건설하게 되면 가족구성이나 생활양식이 같은 세대가 모이게 된다. 이와

같은 동일집단의 편중현상은 경쟁의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외부공간 사용면에서도 마찰을 초래하거나 사용물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한 단지내에서 면적 및 단위 평면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아파트 건설 및 관리에 있어 계속되는 건설계획의 자료연구로서 사후평가(feed back)과정을 두어 아파트에 대한 사용자 측면에서의 사후평가를 정리하여 다음 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국토개발원, 주택자료편람, 1981.
 2) 유영진 : 아파트먼트사, 공간, 9권 1호, 1970. 5.
 3) Westergaard, B., & R. Gutman : *Building Evaluation, User Satisfaction, and Design,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7, pp. 320-329.*
 4) 태원진 : 우리나라 아파트 실배치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1.
 5) 태림건설, 아파트 안내, 1978.
 6) 한국문화사, 아파트정보, 1981.
 7) 윤정섭·신범식 : “도시 집합주택 단지내의 거주밀도에 관한 연구”, 건축, 1979. 8.
 8) Deilman, Harold. et al : *Wohnugsban the Dwelling L' Habitat*
 문용규 : 아파트 실태와 주거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 40 에서 재인용.
 9) Zevi, B. : *Architecture as Space*, 강혁역, 신학사, 1983.
 10) 이현숙 : 현대 한국 아파트 실내장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11) 유영진 : 아파트먼트의 유효면적에 관한 연구, 건축, 1979. 8.
 12) 김종인 : 주택, 주택지, 학교, 도서출판 대광서림, 1978.
 13) Feild, T. A. : *Socio - Economic, Physical Housing Location and Sociopsychological Mesures Used as Predictors of Housing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Ho-

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5.
 14) Moore, H. G. : *Values, Satisfaction, Aspirations and Goal Commitment Among Multiunit Housing Residents, Univ.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Ph. D., 1976.*
 15) Downer D. B., R. H. Smith, & M. T. Lynch : *Values and Housing - A New Dimens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1968. 3. Vol. 60. No. 3.*
 16) Lindamood : *An Analysis of a Housing Alternative Household Charateristics Housing Satisfaction, Residential Mobility and Housing Expenditure of Mobile Home and Conventional Home Residents, Cornell Univ. Ph. D., 1974.*
 17) Soen, Dan : *Habitability - Occupantes Needs and Dwelling Satisfaction, Ekistics, 3 /4, 1979.*
 18)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82.
 19) 한국연감사, 한국연감, 1982.
 20) Steidl, R. E., & M. E. Hoffmann : *Adaptability of Bedroom Space to Family Diversity, Housing and Society Vol. 6. No. 3, 1979.*
 21) Ibid : pp 161 ~ 162.
 22) 정성자 : 주거선택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23) Lindamood : *Op. Cit.*
 24) Beyer, Clenn H. : *Housing and Society, The Macmillan Company, N. Y., 1965.*
 25) 안영배 : 최근의 아파트 주호단위계획에 관한 고찰, 주택, 41 호, 1981.
 26) Sadberry, B. L. : *Housing Low-Income Rural Families, Master's Oklahoma State Univ.,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iacts, 1975.*
 27) Stewart, K. K., & C. McKown : *Determinants of Housing Satisfaction in Rural Low Income Families, Housing Educators Journal, 1977. (Proceedings).*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 Bok Cha Yoon (lee)
 Research Assistant : Hwa Kyoung Shin

